

나라사랑 역사길

제10편_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다

한국도로협회 편집부

‘나라사랑 역사길’은 독립기념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이다. 이 길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로, 우리나라 989개의 독립운동시설과 1,322개의 국가수호시설 등 총 2,311개의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탐방 코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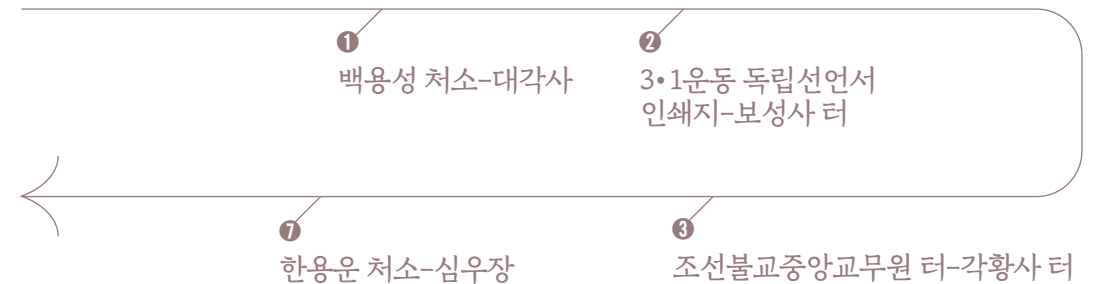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 종로 한복판에 남겨진 불교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가사 자락을 걸친 채 거리로 나섰던 승려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긴다.

📍 탐방로 안내

불교는 산속에만 있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승려들은 가사(袈裟)를 걸친 채 거리로 나섰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만세를 외치고, 청년들을 조직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서울 종로 한복판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약 90분, 걸어서 이을 수 있는 7곳의 사적지를 따라가며 호국불교의 숨결을 느껴보자.

지역
서울 종로

📍 탐방로 안내



📖 코스 개요



일제강점기, 조선 불교계는 '사찰령'이라는 식민지 정책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다. 한용운·백용성을 중심으로 한 임제종 운동이 탄압으로 꺾인 뒤에도 불교계는 포기하지 않았다. 1919년 두 승려는 민족대표 33인으로 3·1 운동에 참여했고, 중앙학림 학인 승려들은 전국 사찰로 흩어져 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1920년대에는 조선 불교청년회가 결성되어 토론회·순회 강연을 이어가며 사찰령 철폐를 총독부에 직접 요구하는 건백서까지 제출했다. 이 코스는 그 모든 저항의 거점들 - 대각사, 보성사 터, 유심사, 중앙학림 터, 조선불교청년회 회관 터, 심우장 - 을 도보로 잇는 길이다.

코스 ①

백용성 처소 — 대각사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를 대표한 백용성이 3·1운동 당시 머물렀던 곳이다. 전북 장수 출신의 그는 서울로 올라와 이곳 봉익동에 대각사를 세우고 포교 활동을 펼쳤다. 1919년 한용운의 권유로 독립선언에 합류,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옥고를 치렀다.

지금 대각사에는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경내 사적비가 그 역사를 전한다. 변화한 종로 뒷골목 어귀, 이 작은 절이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묵직하게 다가온다.



코스 ③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터 — 각황사터

1910년 도성 안에 세워진 각황사는 일제의 불교 장악 정책과 불교계의 자주 노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공간이다. 1920년에는 이곳에서 조선불교청년회가 창립되었고, 이후 불교 개혁을 요구하는 총무원과 총독부 비호 아래의 교무원이 같은 공간에 본부를 두며 대립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금은 작은 수송공원이 들어선 이 자리.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며 쉬는 평범한 공원이지만, 100년 전엔 조선 불교의 방향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오가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코스 ②

독립선언서 인쇄지 — 보성사터

1919년 2월 27일 밤, 이곳 보성사에서는 독립선언서 2만 천매가 찍혀 나왔다. 원래 교과서를 인쇄하던 인쇄소가 하룻밤 사이 역사를 바꾼 인쇄기를 돌린 것이다. 3월 1일에는 이곳에서 『조선독립신문』 창간호도 발행했다. 지금 그 자리는 조계사 극락전 앞마당이 되었다.

조계사 경내를 걷다 보면 평화로운 기도 소리만 들리지만, 이 마당 어딘가에서 승려와 활자들이 밤새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 발걸음이 달라진다.



코스 ④

조선불교청년회 회관 터

1920년 한용운을 따르는 청년 승려들이 결성한 조선불교청년회의 거점이다. 이들은 토론회, 순회 강연 등을 열며 불교 개혁 운동을 이끌었고,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에 사찰령 철폐를 요구하는 건백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단순한 신앙 모임이 아니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청년 운동의 산실이었다. 인사동 골목 끄트머리, 지금의 건물 앞을 지나며 상상해보자. 청년 승려들이 들끓고 토론 소리가 넘쳐나던 그 회관을. 오늘날의 청년 시민운동과 다르지 않다.



코스 ⑤

3·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 — 유심사

만해 한용운이 머물며 불교 잡지 『유심(惟心)』을 발행하던 곳이다. 1919년 2월 24일, 천도교 측 최린이 이곳 유심사로 한용운을 직접 찾아와 독립운동 합류를 요청했다. 한용운은 이를 수락하고 백용성을 불교계 대표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2월 28일 밤, 학생 승려들을 이곳으로 불러 독립선언서 3천 매를 나눠주며 전국 배포를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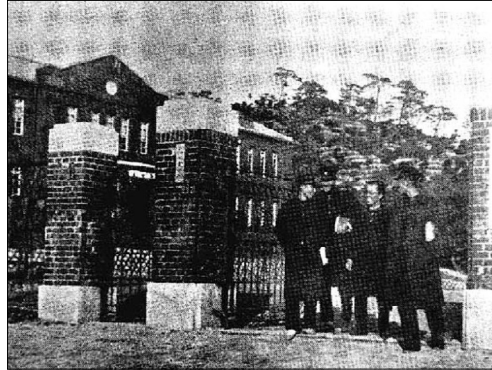
지금도 낡은 한옥 한 채가 계동 골목에 남아 있다. 붉은 벽돌로 보강된 외벽이 오히려 세월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북촌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골목이 3·1운동의 실질적 출발점이었다.



코스 ⑥

3·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 — 중앙학림 터

1915년 개교한 불교계 고등교육기관 중앙학림은 3·1운동의 인적 자원을 길러낸 곳이다. 한용운의 지시를 받은 신상완·백성욱·김법린 등 학인 승려들은 이곳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를 나눠 가진 뒤, 이튿날 서울 시내와 범어사·해인사·통도사 등 전국 사찰로 흩어져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중앙학림은 훗날 동국대학교의 전신이 된다. 지금은 주택가로 변한 이 일대에 표지석 하나가 서 있다. 작지만 묵직한 돌 하나가 "여기서 청년 승려들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코스 ⑦

한용운 처소 — 심우장

코스의 마지막은 성북동 언덕 위 심우장이다. 만해 한용운이 출옥 후 말년을 보낸 이 집은 1933년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어졌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조선총독부 건물이 보이는 방향을 피하겠다고 일부러 북향으로 집을 앉혔다. 해방 1년 전인 1944년, 그는 이곳에서 눈을 감았다. 성북동 언덕을 올라 심우장 마루에 서면 서울 도심이 내려다보인다. 그가 끝내 보지 않으려 했던 그 방향으로. 지금 그 건물은 없지만, 그의 고집은 이 집이 증명한다. 7곳 중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사적지다.



탐방을 마치며

심우장 마루 끝에 서면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한용운이 끝내 외면했던 그 방향으로. 가사를 걸친 채 거리로 나섰던 승려들의 발자국은 지금 우리가 달리는 도로 위에 고스란히 스며 있다.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잠시, 100년 전 그 함성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서울특별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